

한국어라는 별빛

이상규*

언어는 사람들 사이에서
험난하게 부대끼면서 살아야 하는
운명을 타고 났다.
어두운 밤하늘
부산하게 반짝이는 별빛같이
홀어져 있지만
견고한 짜임과 결속으로
이 땅의 사람들이 이루어낸 위대한
생명의 창조물이다.

때로는 질곡 속에서
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을 고뇌하다가
때로는 유성처럼 별들의 길목을 지키는
파수꾼이기도 하다.

솔한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
그 어떤 위대한 창조도
찬란한 지식도
언어라는 기나긴 숲을 지나지 않고는
무위일 뿐이다.

이 땅에 한국어라는 기호의
논발을 가는
고적한 마을이 있다.
한국어의 창고지기 국립국어원

20년 세월을 헤쳐 와
가파르고 험난했던 벼랑,
더 깊은 낭떠러지 앞에 서라.

새로운 시작이다!
무겁게 닫힌 사람들의 가슴을
유난히 밝게 열어라.
그렇게 하여 다시 태어나라.
그렇게 하여 여울의 긴 독을
더 단단히 쌓아 가라.

우리말과 글,
존재의 유일한 등불이자 별빛.
그대들이 어둠 속에서
명멸하는 별빛을
영원히 지켜 주리라.

차 례

축시 한국어라는 별빛 이상규 3

특집1 • 국립국어원의 성과와 전망 • 7

국립국어원 스무 둘의 성과와 발전 방안 민현식 7

국어 정책을 위한 제언 박창원 25

공공언어 개선 및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분야 장소원 53

국립국어원과 한국어 교육 송향근 69

국립국어원이 나아갈 길

조남호, 민현식, 박창원, 송향근, 장소원, 김정숙, 남영신, 한재영 83

특집2 •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에 즈음하여 • 113

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들 송 민 113

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 이익섭 115

한국 문화 창달의 핵심 기관이기를 심재기 117

국어 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남기심 119

이곳 이 사람 이어령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 장승욱 121

어원 탐구 모음 교체와 관련된 어원 김무림 133

우리 소설 우리말 눈물로 이루는 치유의 한 마당

-박완서의 <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> 한혜경 139

국어 산책 호야와 진검승부 -바른 말을 찾아서- 유종호 147

삶과 우리말 방언에 스며 있는 향기 김정대 155

세계의 언어 정책 아일랜드의 언어 정책 정영국 169

국립국어원 소식 • 185

